

1. 종교다원주의 배경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34호
10월 21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

한보연, 임원 및 위원장 연석회의...WCC·WEA·NCCCK배격 한마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수호 사단법인 한국교회보수연합

사단법인 한국교회보수연합(대표회장 박만수 목사, 이하 한보연 KCCA) 임원 및 위원장 연석회의가 지난 10월 5일(목) 오전 11시 예하성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려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사명감당을 위해 WCC·WEA·NCCCK를 배격하고 동성애와 이단, 용공주의를 철저히 금하면서 교회의 본질 확립과 예배를 회복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여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축복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상임회장 강현식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의 환영사, 여성위원장 박은숙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김영준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수색성은장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람 6:9-15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받은 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다 멸망의 경고로 전해온 선지자로서는 귀가 있어도 영적으로 막히고 아둔한 상태로 깨닫지 못하는 마치 귀가 함대를 받지 못한 자와 같은 그들에게 다시 전하는 것이 막막했을 것"이라고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에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이어 "기근과 전쟁의 위험에도 종교지도자들은 거짓으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백성들을 속이며 기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아

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상임회장 신상철 목사와 허병주 목사의 축사, 서기 김영환 목사의 광고, 고분 전석도 목사의 축사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의장 박만수 목사 주재로 2부 회부처리에 들어가 강사근 장로의 회부기도, 사회자의 개회선언, 언론홍보위원장 이은재 목사의 조직보고, 안건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토의사항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어 일정과 상황들을 고려하여 임원진이 하반기 사업과 2024년 신년사업들을 맡아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회부를 마친 후 6시에 명의 각 임원진과 각 분과 위원장을 임명했다. 위촉 및 임명된 조직은 다음과 같다.

고분/조용목 목사, 김원식 목사, 전석도 목사
자문/박영환 목사, 정인찬 총장, 박종선 목사
상임회장/신상철 목사, 허병주 목사, 강현식 목사
공동회장/김병목 목사, 차동욱 목사, 박만수 목사, 김동락 목사, 이성현 목사
김영준 목사, 양은화 목사
부회장/김영준 목사, 나병하 목사, 송종철 목사, 김은영 목사, 박우재 목사
대외협력위원장/윤덕남 목사, 총무단/각 교단과 단체 총무 및 사무총장 서기/김영환 목사, 부서기/김영달 목사
회계/강사근 장로, 부회계/한희상 장로
자문변호인단/강민구 변호사, 윤용근 변호사, 연취현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

각 위원장 24명
1)교회와 연합 2)선교와 국제 3)교육과 문화 4)사회와 봉사

목양시사 -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쟁,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 삼아야”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던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이슬람 저항운동)가 지난 10월 7일 수코트(조마절, 인시일) 절기이며, 새벽에 5,000발 이상의 로켓탄 공격과 함께 육·해·공중에서 습격하여,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다수의 민간인들을 포로로 잡아가, 그들을 볼모로 살해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가 공격을 당한 것이다. 아직도 전쟁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희생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중동에는 이슬람의 극단적인 폭력 무장 단체가 여러 개 있다. 현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비롯하여,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사우디아라비아에 알카에다, 시리아와 이라크에 이슬람 국가(IS)가 있다.

이반에 하마스는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엄청난 양의 무기로서 일방적으로 공격해 왔다. 전쟁은 무엇으로도 명분을 세울 수 없다. 그동안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정하는 물자정기, 수도 등을

쓰면서도, 이처럼 기습을 통하여 혹독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반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 남부의 대대적인 공격은 결코 일으켜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다. 전쟁은 피를 부르고, 그 피는 보복을 가져온다. 따라서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도발은 결과적으로 하마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것이다.

전쟁 경험에 많고 적의 공격을 수시로 당하여, 그만큼 철저한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한다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공격당한 것은 의외이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든다. 하나는 정보 분석의 오류로 본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스라엘의 정보당국은 하마스의 공격 중후를 보면서 '예행 연습'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가짜 평화'에 속았다. 하마스는 지난 수년간 경제 문제에 집중하여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소위 '가짜 평화 제스처'를 한 것인데, 이에 속은 것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늦춰진 긴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반 이스라엘 전쟁 사태를 보면서 북한도 우리나라의 허점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하에서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군사분계

선 기준 5km 이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을 못하게 하고, 비무장지대 내의 초소를 철거했다. 또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0~40km 상공에서 항공기 및 비행물체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 85km 이내까지 내려오는 덕적도 지점까지 해상 기동훈련이나 포격 활동을 못하도록 했다.

이로 인하여 전방지역에서의 북한의 동태를 정확히 살피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선제 공격이나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상 북한에 의하여 유방무실한 9·19 군사합의를 능가할 조치를 신속히 내려야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소도 잃지 않고, 외양간도 튼튼히 할 방안을 가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반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선제공격이 주는 위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나 전쟁 역제는 '평화 쇼'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우위의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확실한 방법을 알면서도 이를 못 지키면 그런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 한국교회언론회



‘신유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편견’



조용목 목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삼서 2절)

사람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귀중한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병 고침 받기 위해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유에 대한 무지, 오해, 편견들을 열거하면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비 성경적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신유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활동도 병든 사람을 고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복음과 신유의 복음을 계속하여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신유의 사명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둘째는,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어찌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람이 병들기도 하고 낫기도 하므로 병든 자는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병들면 병원에 가고 약도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은 자신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도록 처신하는 것이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 증거가 성경에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는, 병든 사람은 질병의 치유보다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영적 변화와 진보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만일 그것이 질병이나 육체적인 장애나 연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특별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유의 사역을 했

습니다.

넷째는, 신유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의학의 발전은 경이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전염병이 거의 퇴치되거나 천연두처럼 완전 정복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자면 질병과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종 바이러스와 내성을 가진 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병과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신유를 위한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유를 위한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낫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신자들의 믿음에 손상을 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약을 먹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하다고 하여 약방과 병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병든 자는 치유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으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신유의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 현상이 생깁니다. 고통이 멈춥니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감소되거나 제거됩니다. 의학적인 치료에 효력이 증가됩니다. 병의 진행이 중지됩니다. 급속히 치유되기도 하고 서서히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병 고침 받기 위한 것뿐 아니라 병 고침을 받게 됨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유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편견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연고로 생겨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신유의 믿음에 장애가 되는 그릇된 지식과 생각이 말씀하게 제거됩니다. 성경에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기쁘게 감수하라고 했지만 질병은 치유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병든 자가 고침 받는 것입니다.

(논예와전교회)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등 27개 단체 일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음은 성명서 중 일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담긴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을 규정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정부의 각 부처가 마련한 계획안을 취합하여 4차 NAP 초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공청회와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4차 NAP은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런데,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남녀 이외의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가 사용되어 있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 용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며,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키는 나

쁜 4차 NAP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삭제 및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2.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라!
3.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4.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5.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6. ‘악물 낙태 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을 추가하라!

상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규탄 집회 개최와 법무부 앞 천막농성, 1인 시위,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집단 민원 제기, 대국민 전단지 및 동영상 배포와 반대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0월 18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합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수도권가톨릭총연합회 외 22개 단체 일동

한국사회발전연구원과 출산장려

세기충, 결혼장려기금 등 대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키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세기충)는 10월 9일(월) 세기충 본부 회의실에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김요셉 목사, 출산장려운동 본부장 김춘규 장로)과 업무체류를 맺고 출산장려운동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결혼장려기금 대출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 전개와 무료결혼식 사업, 보호출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조기 결혼 및 출산의 중요성 홍보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무엇보다, 결혼 적령기(20세~35세)의 남, 녀가 결혼 후 혼인신고 즉시 정부에서 금 2억 원을 대출해주고 3년 이내 1명 출산 시 1억 원을, 6년 내 2명 출산 시 전액 탕감 해준다(의학적으로 불임 증명 시 임양도 동일한 혜택)는 내용이 담긴 입법청원을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날 협약식은 사무총장 신광수목사의 사회로, 조상제 장로(한국사회발전연구원 사무처장)가 기도하고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이



사장 김요셉 목사와 세기충 직전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가 인사를 전했다.

김요셉 목사는 “세기충과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에 감사한다”면서 “출산 장려를 위해 양 기관이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화석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출산장려운동”이라며 “양 기

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산장려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것과 함께 일할 수 있음은 귀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결혼식 장소 피로연, 예물, 식장 장식, 예복(대여), 주례 등을 지원하는 무료 결혼식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원자들을 통해 친정 부모 결혼, 신생아 보호 및 양육을 돕는 일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아시아기독교대학연맹 제25회 총회 개최

소속 63개 대학 총장 등 100여 명 참석

아시아 8개국 63개 대학이 소속된 아시아기독교대학연맹(회장 이광섬 총장, 이하 ACUCA) 총회가 5년 만에 대면으로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열렸다.

한남대는 10월 18~20일 교내 메이커스페이스, 무어아트홀과 오노마호빌 등에서 ‘2023 ACUCA 제25회 총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ACUCA 소속 63개 대학에서 총장 및 국제교류책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18일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최도성 한동대 총장이 ‘VUCA 시대에 배워서 참여하고 나누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최 총장은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복잡다단한 상황을 이르는 ‘VUCA’(변동성 Volatile, 불확실성 Uncertainty, 복잡성 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 세계에서 기독교대학들의 나아가길 방향을 논의하는 자



리가 되었다.

또한, 세션별 다양한 주제발표와 패널 등이 참여하는 주제토의가 진행되었으며, 문화공연 및 만찬 등이 이어졌다.

19일에는 제25회 총회가 열려 이광섬 ACUCA 회장의 성과보고, 정관 및 부칙승인 등의 절차와 차기 회장교 및 집행위원회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2024년부터 2년간 임기를 맡게 될 차기 회장교는 일본 도시사대학

(총장 우에키 토모코)이다.

또한, 해외 참가자들은 한남대 캠퍼스투어와 더불어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대덕연구단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20일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해 한복 입어보기, 비빔밥 식사 등을 함께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주)바스케이션, 지파운데이션에 물품 기부

진정성 있는 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에 나눔 실천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충관)은 (주)바스케이션(대표 이영조)로부터 취약계층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6천5백만 원 상당의 속옷을 기부받았다고 지난날 25일 밝혔다. (주)바스케이션은 2022년부터 지파운데이션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 상하반기 정기적 물품기부에 참여했다. 지파운데이션은 금년 기부한 물품은 여성 속옷 ‘스킨이즘’으로 지파운데이션 나눔가게에서 판매하고 판매된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을 도울 예정이다. 지파운데이션 나눔가게는 사회적경제사업의 일환으로 경력단절 여

성을 고용하며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정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바스케이션은 카테고리별 전문브랜드를 구축해 차별화된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베푸는 기업이다.

현재 운영중인 브랜드로는 패션브랜드인 ‘모그리피’, 리빙브랜드인 ‘달콤라이프’, 국내산 마리모 및 소품 브랜드인 ‘세남바스켓’, 친환경 뷰티브랜드인 ‘천비누솜’이 있다.

(주)바스케이션 관계자는 “(주)바스케이션은 평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관심이 많았고 진정성 있는 단체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며 “자사 제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제9회 2023 아시아 태평양 주거 포럼’ 개최

해비타트, 주거취약이웃 주거환경 개선 지속

해비타트가 지난날 26~27일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에서 ‘제9회 2023 아시아 태평양 주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0월 6일(금) 서울 중국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해비타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적정 가격의 포용적 주택 위기를 언급하고, 비공식 정착촌에 적합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루이스 노다(Luis Noda) 국제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적합한 주택 마련을 위한 대대적인 솔루션 모색이 시급하다”면서 “더 나아가 이주, 불평 등 신화, 고정화,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의 영향이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민가나 비공식 정착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거환경에는 기초 생활여건, 토지보유권 보장 및 기후 탄력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유엔 연구에 따르면, 아·태지역 도시 거주자는 2030년까지 28억 명 이상, 2050년에는 3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완화 및 대응을 위한 조치는 실행되는 수백만 명의 주거적 차 문제와 함께 항상 의미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최근 몇 년 동안 해비타트는 기후 변화에 따른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다양한 방법을 시험 및 적용했다.

이광희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은 “한국 해비타트는 창립 이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에서 주거권을 옹호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독립운동가 후손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 캠페인 외에도 취약계층 이동가구를 위한 주거 개선, 산불 및 재난 대응사업, 기타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국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다산문예진흥원, ‘다산한복모델 패션쇼’ 개최

제37회 다산 정약용문화제서 진행

다산문화예술진흥원(원장 이효상 목사)은 지난 10월 14일(토) 다산 정약용 생가에서 열린 제37회 다산 정약용문화제 개막식에서 한복모델 패션쇼(선발대회)를 진행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약용문화제는 경기도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축제중 하나다.

이날 축제(다산한복모델 패션쇼는 정미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고향이자 생가에서 펼쳐진 우리 고유의 전통 복식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패션쇼는 다산문화제 행사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이날 출연자들은 전통문화와 연결되는 우리 한복을 널리 알리기 위해 모델들의 재능과 끼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패션쇼를 주최한 다산진흥원은 지난 8월과 9월, 일반, 시니어, 청소년, 가족, 단체, 다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유형별 52명의 참여 신청자 중 워크숍을 거쳐 25명을 최종 출연모델로 확정했으며 이날 쇼를 진행하

게 됐다.

한복쇼와 관련 주광덕남양주시장은 “우리 한복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있기에 경기도가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한복모델선발대회와 다산한복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류문화 시대에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예장개혁신, 제108회 정기총회 성료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이루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총회 제108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9일(화)부터 21일(수)까지 중앙중앙교회(조성환 목사)에서 ‘다시 말씀으로~!’(행 12:20)라는 주제로 열렸다.

9월 19일(화) 오후 2시 총회장 임용석 목

사의 사회로 개회예배, 직전총회장 박영길 목사의 집례로 성찬 예식을 한 후, 서기 최우종 목사가 회원을 호명하고 성수가 되었음을 보고하자 총회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회무처리가 진행되었다. 총회의 새 임원으로는 총회

장 송동원 목사(호남노회), 목사부총회장 김선 목사(서경노회), 장로부총회장 김영수 장로(경기노회), 서기 김순모 목사(경기노회), 부서기 정철화 목사(경분노회), 회록서기 김규태 목사(중부노회), 부회록서기 임명숙 목사(한성노회), 회계 모정연 장로(서울노회), 부회계 이태현 장로(경인노회)가 선출됐다.

이후 임원선거 후에 절차에 따라 회무를 삼 일에 걸쳐 처리하고, 21일(수) 오전에 총회장 송동원 목사의 인도로 피회예배를 드리고, 파회를 선언함으로써 회가 마무리됐다.

총회장 송동원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제108회 총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포부를 밝혔다.

예장총회, 제108회 정기총회 성료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한국교회 밀알 될 것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총회 제108회 정기총회가 지난날 21일 오전 11시 남양주시 회도를 소재 성령교회 본당에서 열려 교단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국교회의 작은 밀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 1부 예배는 총무 백정홍 목사의 사회로 서기 박희선 목사의 기도, 회의록 서기 이영숙 목사의 성경봉독, 성령교회 성가대의 특송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장 박천진 목사는 돌 8:26-30절을 본문으로 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하지 못한다.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예배는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나라 발전과 민족 평화통일을 위하여 중앙노회장 고한택 목사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증경노회장 성백은 목사가, ‘배정총회와 각 노회 및 지교회 부흥을 위하여’ 중앙노회장 이인장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부총회장 서종수 목사의 축도로 이어진 2부 회무처리는 의장 박천진 목사의 사회로 성원보고, 개회선언, 개회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계보고를 비롯한 각부 보고 등은 모두 유인물로 받기로 했다.

생명의 말씀



정석현 목사

• 군 선교부위원장
• 경기남 지방회 집회회장
• 순복음평강교회 담임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어오면 날이 더워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정조는 분별치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과학 정보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지구촌 구석구석을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때와 장소 불문하고 어느 곳에 서라도 다양한 정보와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폰 속에 정신을 빼앗기고, 이 폰으로 인하여 생활 패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창조와 함께 출발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간은 창조주의 시간에 맞춰져서 과거와 미래 사이의 연결된 공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현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시대를 분별하라

마 23:25

통해서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인류의 긴 역사와 종말에 대한 미래의 일들과 그 후에 전개된 사건들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를 역사 속에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벧후 3:13)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1)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적 한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내 스스로 하고 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전 15:10) 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경영하여도 그 결음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잠 16:9)

성경은 마 24:4-8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를 기억하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시대는 실제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우상이 만연하며, 미혹의 때요, 사람이 식어진 때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증에 가장 귀한 것은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지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보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롬 12:2) 그럼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 다윈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 같으니 다양하게 종교를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불교도, 회교도, 유교도, 천주교도 다 구원을 받기 위해 믿으니,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 거지, 꼭 기독교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정통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 4:12)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 43:11) 또 하나는 New Age 운동입니다. 종교다윈주의는 종교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뉴에이지는 각 나라의 문화의 다양성을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혼합되어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마음껏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음악과, 예술과, 문화가 우리 가까이 들어와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성애와 동성혼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창조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 합법화 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퀴어축제를 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스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롬 1:27) 이렇게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는 버젓이 드러내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평등을 앞세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하는데 왜 못하게 처벌하

느냐며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동조하는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분명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고, 동성애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율랑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시대를 분간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전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 23:25)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 자로, 마치 연가자가 대본대로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인은 안이나 밖이나 신앙인답게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록기록하며 교회 밖에서는 제멋대로의 행동을 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시대를 두 눈을 부릅뜨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소리치며, 정신줄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훈련을 받아야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마귀의 꾀에서 벗어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여려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람들이 서울에서만 1,8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체제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또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세력은 이단들도 있다. 최근에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중앙일간지인 조·중·동과 주요 일간지에 고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듯한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집단이 있다. 이것도 ‘영적인 가짜뉴스’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초기에 큰 물의를 일으켜, 그 사실을 연일 보도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이단 집단의 광고도 버젓이 받아주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주소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중국의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게임에 국내 유명한 포털상에서 중국 응원 이 89%를 차지하고, 우리 응원은 11%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 포털사가 중국 소유가 아니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가짜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가짜뉴스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거짓되고, 허위 내용을 버젓이 진짜인 것처럼 퍼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일에 언론과 정치권이 합작을 하게 되면, 일어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정치인은 언론의 출신이면서도 국회에서 있을 만하면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는가? 국민의 대표로 국민들보다 더 ‘준법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권리만을 챙기려는 모습이 짙어진다. 편향되고 정치하지 못한 언론과, 언론의 강한 전파력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서 ‘하

웃’ 감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실존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과 가짜에 대하여 국민정서 이상의 관대(?)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민들 가운데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사실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설명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덮어주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가짜와 거짓 정보의 유통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대대해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여당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의 기사를 수백만 건 뿌리는 일을 했다. 그 결과 그는 47.83%의 지지를 얻었다(그가 얻

은 득표율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그것에 현혹된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는 고용문제, 부동산 문제, 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하여 발표했다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거짓과 조작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과 가짜가 횡행하는 사회는 망국(亡國)으로 가는 것으로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포함하여 매우 엄격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벤트로 악용한 것이다. 이렇듯 거짓과 가짜가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언론들의 책임도 크다. 일단 국민들은 공적인 언론들이 보도하면,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은 팩트 체크를 통하여 진위(眞僞)

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일단 보도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니, 공영방송마저도 가짜뉴스에 놓이려는 시대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날로 증가하여,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론조작 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431명으로, 전체 기소된 선거범의 59%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 18대, 19대 대선에서의 여론조작 건수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된 것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에 대하여 엄정하고 분명하게 하여 사회 정의를 세우야 할 법조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항간에는 김일성 교시로, 김일성의 장학금으로 1980년대부터 공부하여, 30년간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

람들이 서울에서만 1,8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체제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또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세력은 이단들도 있다. 최근에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중앙일간지인 조·중·동과 주요 일간지에 고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듯한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집단이 있다. 이것도 ‘영적인 가짜뉴스’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초기에 큰 물의를 일으켜, 그 사실을 연일 보도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이단 집단의 광고도 버젓이 받아주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주소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중국의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게임에 국내 유명한 포털상에서 중국 응원 이 89%를 차지하고, 우리 응원은 11%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 포털사가 중국 소유가 아니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가짜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동 정

터너 미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하고 북한 인권 관련 한미간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6년간 공석이던 미국 북한인권특사직에 터너 특사가 임명됨을 계기로 양국간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태영 목사, '과학과 종교' 주제강연



강태영 목사(온라인학회 기독교세계관연구소)가 최근 유튜브 채널 '온신학TV'에서 '과학과 종교 그리고 과학주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목사는 “오늘날 자연과학은 일종의 종교처럼 되어가고 있다”며 “오늘날의 자연과학자들은 전문영역이 따로 있지만, 철학이나 윤리, 미학 그리고 종교 등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둘러 쌓여있다”고 했다.

한동대, 교육 패러다임 바뀌어야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은 지난 9월 28일 미국 미시시피주 윌리엄캐러리대학에서 열린 글로벌대학총장협의회 연차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변동성 높고 불확실하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결대 취업캠프 프로그램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9월 15일 '이미지메이킹으로 취업캠프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3~4학년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이미지메이킹 특강, 퍼스널컬러 진단 및 1:1 컨설팅을 제공하여 면접 준비에 필요한 자신감과 이미지메이킹 전략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하나님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기도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 9월 25일(월) 오전 11시 합리순복음교회(담임 이광호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광호 목사(합리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조미숙 목사(황등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정성렬 목사(신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겔 31:1-8 말씀을 본문으로 '백행목과 싹남나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백행목 같은 목회자와 비록 싹남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권면했다.

이어 증경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알곡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익산 은혜외전리교회)의 인도로 안건들을 처리한 후 모든 순서를 마치고 에덴교회(구봉숙 전

도사)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새만금을 둘러본 뒤 선유도에서 치를 마시며 교제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가을산행기도회 갖고 하나님께 감사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10월 9일(월) 가을산행기도회를 갖고 지방회의 결속과 교회의 부흥, 교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회원들은 의성군 유적지 일대를 탐방하며 삼한시대부터 발견되는 기독교 관련 유적들과 100여 년이 넘는 교회들의 신앙의 뿌리를 둘러보며 귀한 축복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



많은 선배 목사들의 관심과 사랑,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헌신으로 귀한 시간 속에 회복을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반석샘물교회 성전 이전 감사예배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10월 7일(토) 반석샘물교회(담임 배길선 목사)에서 성전 이전 감사예배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미연 목사(열린교회)의 찬송 인도 후 지방회 총무 김진현 목사(미전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강신홍 목사

(주사랑교회)의 대표기도, 부회장 서성영 목사(북원교회)의 성경봉독, 김은숙 목사(순부흥교회)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천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학 2:1-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복되게 하시는 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을

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며 "배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성전을 예비하게 하셔서 이렇게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리며, 지방회원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결실의 계절에 많은 열매를 맺는 지방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조정훈 목사(하늘소망교회)의 헌금기도 후에 제2부 순서로 전임회장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와 부회장 서경오 목사(순복음부흥교회)의 축사와 전임회장 정석현 목사(행강교회)의 권면이 있는 후에 배길선 목사, 안희용 안수집사의 특별 찬양에 이어 담임목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전임회장 박흥열 목사(오성시랑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인근 식당에서 중식을 마친 후, 카페에 모여 10월 월례회를 통해 인건을 처리 후에 각자 목양지로 향했다.



안수집사 · 명예권사 임직감사예배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허만운 목사)는 10월 9일(월) 오후에 위치한 갈릴리온소망교회(교단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에서 갈릴리온소망교회의 성도 옹호도 안수집사와 이순자

명예권사의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항구 목사(주천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회계성여호수아 목사(시온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허 목사는 계 2:10 말씀을 본문으로 임직자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해야 됨을 설교했다. 설교 후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회) 집례로 임직식을 진행하였는데 지방회의 안수위원들이 임직을 받는 옹호도 안수집사와 이순자 명예권사에게 안수를 한 후 김영준 목사가 임직을 공표했다.

이어서 전임총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축사가 있었고, 전임지방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권면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석호 목사의 축도로 임직감사예배를 마쳤다.

이 후 한병하수오 오리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또한바닷가 전망이 좋은 카페로 이동하여 치를 마시며 즐겁게 교제를 나누었다. 그 후 아쉬운 인사를 뒤로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안세포 성장억제, 각종 안의 예방(쥐살함)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각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치사율리인 : 토황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4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예학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 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정학력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1737-04-006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학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전국사모회 제11차 사모단합대회

전원성전 및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개회예배설교
조용묵 목사
정책위원장



폐회예배설교
김병묵 목사
총회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신 33:29)



신명희 사모
전국사모회 회장

교단 전국사모회(회장 신명희 사모)는 지난 10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2박 3일간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및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과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제11차 사모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60여 명의 전국사모회 회원들은 교회 안팎으로 바쁘고 바쁜 삶을 살아온 등으로 분주

한 시간을 보내다가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숲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사랑 나눔의 귀한 시간을 함께 했다.

전국사모회 회원들은 첫날 오후 3시 전국에서 온 60여 명의 회원들이 전원성전에 모여 등록을 마치고 OT, 지방회 소개, 첫 만남 활동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준비했다.

저녁식사 후 먼저 하나님께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은혜와진리교회)를 강사로 하여 개회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돌렸다.

조용묵牧사는 고후 13:5 말씀을 본문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모들의 충성과 헌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WCC, WEA 등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단체와 이단 사이비 집단의 말씀에 대한 해악행위로 영적으로 매우 혼잡한 시기에 오직 성경대로의 믿음으로 말려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하고 회원들 모두를 축복했다.

전국사모회 신명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사모단합대회를 이룬다는 모임을 갖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심신의 휴식과 주의 사랑으로 진교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고 교단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소망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수고한 주신 모든 분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회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회원들은 2박 3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지난해 6월 3년간의 리모텔링의 기간을 거쳐 재개관한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을 돌아보



며 조선 후기와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드린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리고 한국 기독교 200주년의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세계 및 한국 기독교 순교역사와 한국 기독교 순교자들의 신앙유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각종 농장과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체험농장, 자연학습로, 유실수단지, 들꽃광장, 잔디광장, 농기계 및 곤충 전시관 등을 돌아보며 쉼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다시 전원성전으로 돌아와 ccm찬양가수 테너 박종

호 장로를 강사로 강증과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셋째날에는 교단 총회장 김병묵 목사를 강사로 폐회예배를 드리며 말씀충만, 성령충만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며, 은혜와 사랑, 성령충만과 축복의 시간을 함께 했다.

전국사모회 회원들은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교단과 임원진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활력을 얻고 더욱 교단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서로의 목양지로 향했다.



한국순교자기념관에서
순교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있
다.



용인농촌테마파크
에서 쉼의 시간을가졌
다.



‘다음세대와 한국교회의 회복 방안’

미래목회포럼 제19-5차 정기포럼 개최

한국교회 미래를 여는 앞선 생각 미래목회포럼(대표 이동규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은 지난 10월 5일(목)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민음홀에서 제19-5차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팬데믹 이후 다음세대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회장 다음세대본부장 설동주 목사의 인도로 열린 포럼은 실행위원 김영복 목사의 개회기도, 이사장 이상대 목사의 인사말, 대표 이동규 목사의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다.

대표 이동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특별한 때문에 지치고 탈진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두려워할 뿐 아니라 내가 탈진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며 “코로나 이후 모두가 소망을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어떻게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을까. 탈진이 오면 어떻게 되둬야 하는가. 오늘 포럼을 통해 귀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이상대 목사는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줄어든 지금의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전하고 “오늘 우리 미래 목회 포럼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기포럼을 개최하게 된 만큼 이 포럼을 통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진단하고 돌보며 치유하고 회복을 위해 나서게 되기를 바라고오늘의 포럼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새 마음을 갖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세대와 한국교회의 회복 방안 -팬데믹 이후 목회자 탈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발제자로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고려대학교 한성렬 명예교수, 총신대학교 강은주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 대표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변화와 목회자 상황’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팬데믹 이후 현재 속도로 계속 가면 향후 10년 뒤 개신교인이 10%(600만)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가나인정도의 인구 역시 10년 뒤에는 무려 52.4%(2032년)나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예상을 내놓았다.

지 대표는 이어 코로나19 이전 대비 주일 현장에



베의 회복도가 2022년 4월 이전 66%였던 것이 2022년 4월 73%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1월 86%, 5월 86%로 증가가 멈췄다고 했다. 온라인 실시간 중계 교회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성도들의 온라인 예배 참여 비율은 12%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교회 내 주요사역 회복도의 경우 70%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성도들의 신앙 역시 악화현상이 심각하다고 했다. 교회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교회출석자 10명 중 4명이나 됐다고 했다. 이러한 추세는 목회자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교회재정의 경우 29명 이하 교회에서 심각한 상황이며, 목회자 5명 중 3명 이상은 교회 존립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목회자들의 주관적 건강도 역시 일민국인보다 훨씬 낮은 편에 속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40대 이상 목회자들은 노후 준비율이 42.6%로, 일민국인의 73.8%에 대비하면 훨씬 낮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 대표는 ‘교회 수축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그룹과 가정예배, 부모교육, 교회학교, 미션네트워크, 청년목회, 하이브리드목회, 세대통합목회 등 다양한 부분들을 모두 감당하려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한성렬 명예교수는 ‘목회자 소진과 상담’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목사들은 성직자로서의 자의식과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히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면에서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심리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진되지 않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 놓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누구보다 소망하는 목회자도 힘들고 화날 때가 있다. 이때 예수님처럼 주저 없이 상담 받으면 하늘에서 오는 힘을 받아 소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총신대 강은주 교수는 ‘교회의 다음세대 진단, 돌봄, 치유, 회복’에 대해서 발제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목회자의 탈진은 엔데믹 이후에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특히 현세대와 너무나 다른 다음세대는 출생부터 다른 삶과 문화로 인해 현 세대와의 소통이 어려운 왜곡된 같은 세대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하나님-인간, 인간-인간, 인간-자연간의 소통의 단절의 자연적 결과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 근원적 문제를 조망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내려진 이 재앙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은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각기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대한 통합적 고찰, 진단, 문제파악,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하며 이것은 한 요소가 아닌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므로 모든 것은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자연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여 그에 대한 유기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 지진 긴급구호에 20억 지원 계획

월드비전, “맨손으로 잔해 헤치며 생존자 구하기 위해 필사

월드비전은 지난 10월 7일(토) 아프가니스탄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긴급구호대응을 위해 한화 약 20억원(미화 150만 달러)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7일 오전 6.3 규모의 지진을 포함한 연이은 지진이 아프가니스탄 서부 지역을 강타했다. 진앙지는 아프가니스탄월드비전 본부가 위치한 헤라트(Herat)에서 40km 떨어진 곳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지진 발생 전부터 이미 가뭄과 분쟁, 이로 인한 경제 악화 등으로 이미 2920만 명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월드비전은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긴급구호를 비롯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월드비전이 활동하는 헤라트 주 4개 지역 모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무너진 건물 잔해가 도로를 막고 있어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헤라트 주립 병원은 병상이 모자란 상황으로 부상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드비전은 현장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월드비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아동들 일부가 사망하고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9월 기준, 10개의 이동식 의료팀을 가동했으며, 생필품으로 구성된 키트 300개를 긴급하게 배분했다. 월드비전은 필수 의료물품 및 의약품을 긴급 지원하고 향후에는 식수위생 및

아동보호 중심 대응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지역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과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타 NGO, 유엔 기구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프가니스탄 타민드리 드 실바 회장은 “황폐화된 마을의 주민들이 아무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잔해 속에서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병원은 하나 뿐이며, 심각한 환자들은 도시의 다른 시설로 이송시키고 있다. 피해 주민들과 아동들이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긴급한 의료지원, 식수와 식량, 임시대피소가 필요하다. 월드비전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긴급구호를 비롯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약 700명의 직원이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4개 지역 헤라트(Herat), 고르(Thor), 파르야브(Faryab), 바드기스(Badghis)주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사태 발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에는 아순다 찰스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아프가니스탄의 위기 속 아동들과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며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2023년 한글날 논평

한글은 모든 백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창제된 민주적 글자이자 문화발전의 원동력이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1446년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 577회를 맞이한다. 한글날의 기념은 조선어연구회(한글학회 전신)가 주축이 되어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처음으로 거행하였으며, 앞으로 한글을 반포한 날인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여 행사를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1928년 명칭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 여기에 책이 발견된 때가 음력 9월 상순(1~10일)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상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로 상정하고 음력 1446년 9월 10일을 윤리우스력으로 변환해 10월 9일을 기념하게 되었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제정된 것은 1949년이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가장 자랑스러운 보배이자 온 인류가 기념해야할 소중한 문화이다. 특히 AI혁명, 모바일 혁명의 시대를 맞아 한글의 우수성과 확장성은 더욱 빛나고 있다. 이제 한글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글자가 아니라 세계인의 문자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한글을 더 사랑하고 아낌없이 가꾸어서 세계인의 보화로 만들어야 한다.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인류문화의 증진에 힘쓰도록 하자. 살뜰나비는 올해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보존성에 관하여 다음같이 표명하고자 한다.

1. 한글은 일반 대중에게 대한 사랑이 있는 민주적 글자이다.

한글은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조선 세종대왕이 만들어 반포한 문자이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으로 애민(愛民)정신이 깃들여 있다. 당시 한문을 모르는 일반백성들은 문자생활에서 소외됐다.

한문은 소수만을 위한 배타적 권력이 됐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세력은 바로 지배계급이었다.

한글의 창제와 보급으로 일반백성들은 비로소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됐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이다. 한글은 이렇게 문자생활과 소통에서 민주주의를 이뤘다. 이러한 한글의 민주성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의 짜야짜야족은 한글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배우기 쉽고, 모든 발음을 비교적 정확히 표현하기 때문이다. 한글의 세계화에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2. 위대한 문화유산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 싸여있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강대국의 영향 속에서 자칫 자부심을 잃고 사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은 중국의 신하(臣下)나라로 자처했고, 그래서 한자를 고귀한 것으로 여겼다.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엔 영어를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글을 무시하려는 경향도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한자나 영어의 알파벳보다 언어학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상정되는 모바일시대에 음소문자인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글의 우수성과 세계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물론 글로벌시대에 살다보니 세계의 언어인 영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어의 신하(臣下)로 살아가는 안 된다.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나친 영어식 표기는 삼가야 한다.

3. 한글성령이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한글을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글성령이다. 성령을 한글로 번역해 보급한 것은 문자와 생활의 혁명이었다. 16세기 독일의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보급한 것이 서양문화의 근대화를 만들었듯 한글성령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일구어냈다. 한글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노가과 교회에 나와 한글성령을 보면서 한글을 익혔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제 한글성령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이 시대와 세대에 맞는 언어로 다시 번역될 필요도 있다. 특히 MZ세대 불리는 지금의 세대는 매우 감각적이고 자신들의 독특한 구호 속에서 자칫 자부심을 잃고 사대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조선은 중국의 신하(臣下)나라로 자처했고, 그래서 한자를 고귀한 것으로 여겼다.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엔 영어를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글을 무시하려는 경향도 생겨난 것이다.

4. 한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조선 500년의 역사를 통해 한글이 너무나 소중한 글이지만 얼마나 천대받으며 무시될 수 있는지를 체험하였다. 양반들이 자신들의 문자권력을 포기하지 않고 한문만을 숭상했을 때 한문문학작품들은 생산되었지만, 한글문학작품은 거의 생산되지 못했다. 그래서 허균이 최초로 지은 한글 소설이 홍길동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상식이 되고 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할 때까지 거의 한글본문이 정립된 것이 거의 없었다. 성경이 번역되고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서구 언어 문법의 영향을 받는 가운

데 한글본문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의 모진 한글 필박의 시기를 지나 이제 한글의 융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글은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여 활용의 폭을 넓히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지속적으로 정립되어야 수준높은 문화언어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한글의 발전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해야 한다.

5. 한글의 발전이 오늘날 세계적인 인류의 완성이 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한글을 사용하는 가운데서도 한글이 한국문화 발전의 원천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자각하지 못하였다. 한글이 우리의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 한글이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의 근본 원동력이고 토대라는 것을 자각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1990년대 이후에 드라마와 아이돌(idol, 인기있는 젊은 연예인) 중심의 한국 대중 음악이 K-팝(K-pop)으로 불리며 중화권 국가와 일본 등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등 전성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를 왜 오랜 기간 한류(韓流)라고 불렀다. 한류는 중화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우리 문화를 의미하며 주로 음악이나 영상분야로 국한되었다.

2000년대 접어들어 K-cul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문화가 아시아권을 넘어 미국과 유럽,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확산되어 그야말로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장르도 아주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현재 K-컬처는 K-엔터테인먼트에 속하는 K-팝, K-댄스, K-뮤지, K-드라마, K-필름, K-애니, K-웹툰,

K-에니메이션, K-공연, K-게임 등 무형 상품 분야와 ‘K-문화 상품’에 속하는 K-푸드, K-패션, K-레미 파크, K-관광, K-놀이공원, K-쇼핑 등 유형 상품 분야가 골고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로 K-culture가 발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K-culture의 발전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한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최근의 한글세대는 한글로 사고하고 한글로 문화를 창조하는 역량이 뛰어나게 성장하였다. 한글전용세대들이 한글을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K-culture가 세계인들에게 호소력을 가진다는 것은 한글문화의 저력이자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K-culture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들이 생겨나고 있고 한국의 젊은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정도 확대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K-culture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인의 보편적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한글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유희도락을 함양시킬 수 있는 문화적인 역량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6. 한글의 과학적 능력을 활용하여 세계문화 발전에 공헌해야 하겠다.

한글은 창제 원리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아주 과학적인 문자이다. 언어연구학으로 세계 최고인 영국 옥스퍼드대의 언어학대학에서 세계의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적이 있는데, 한글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또 유네스코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발표한 언어 2000여 종에 가장 적합한 문자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 역시 한글이었다. 그리고 유네스

코에서 1990년부터 해마다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을 선정하여 상을 주는데, 그 상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이다. 상(賞)의 이름을 ‘세종’이라 지은 것은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 문맹을 퇴치하는데 공헌한 세종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한글이 배우기 쉽고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유네스코가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몇 가지 선례들이 있는 비와 같이 문자가 없는 민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성공한다면 한글은 세계의 문맹퇴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컴퓨터에서 자판없이 음성인식으로 표기하게 될 때 가장 과학적인 한글이 가장 손쉽게 사용될 수 있어 세계 공용어로서의 사용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세계에 알리고 활용하게 하여 세계인의 언어사용능력 향상과 문화창조능력 발전에 기여해야 하겠다.

7. 한글을 통해 세계간교와 복음화에 앞장 서자.

아직도 세계에는 많은 민족들이 자신의 글을 갖고 있지 못하다. 흔히 말하는 미진도 종족이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 특히 자기 글을 갖고 있지 못하는 종족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그들의 문자를 삼는다면 선교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도네시아의 짜야짜야족이다. 미진도종족에게 한글이 보급돼 그들의 문자가 되는 것은 선교의 확장을 넘어 인류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일을 한국교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당연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에 앞장 서야 한다.

한글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한국교회는 이 한글을 사랑하고 가꾸고 세계에 보급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6일
살림을 꾸꾸는 나비행동

‘K-가스펠 시즌2’ ‘청년백서 시즌3’ 첫 방송

CTS, 가을신규프로그램 배우 신현준 진행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가 주최·주관하는 글로벌 가스펠 오디션 ‘K-가스펠 시즌2’(연출 지동호 PD)가 10월 21일(토) 오후 7시 첫 방송한다.

K-가스펠 시즌2는 지난 6월 참가신청을 시작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 800여 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진행을 맡은 배우 신현준 씨는 “국내외 수많은 참가자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참가자들의 찬양에 녹아진 삶의 이야기와 숨겨진 재능들이 시청자들에게 더 큰 은혜로 전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외에도 시와그림 김정석 목사, 소리앨 지명현 목사, 지전 전도사, 유은성 전도사, 배우 김선경 집사, 가수 자두 사모, 헤리티지 김효식 전도사, 바리톤 김민성 교수 등이 심사위원으로 함께했다.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방송되는 K-가스펠 시즌2는 오는 11월 25일 생방송으로 전해질 최종 결선을 통해 우승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K-가스펠 수상자들은 ‘CTS 아주 특별한 찬양’, ‘성탄트리 점등식’, ‘부활절 퍼레이드’ 등 각종 방송 출연과 문화행사는 물론 음반 발매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며 찬양사역자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CTS기독교TV와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가 함께하는 ‘청년백서 시즌3(연출 김유진 PD)가 새롭게 20일(금) 오전 10시에 첫 방송되었다.

청년백서는 백석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진로, 연애, 인간관계, 신앙 등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주며, 가수 자두의 진행으로 이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특집 ‘한국교회 위기 보고서’

월간목회 10월호… 교회, 자립 가능한가

「월간목회」는 ‘한국교회 위기 보고서’라는 주제 아래 9월호부터 12월호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오늘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문제들에 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학문적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경험적 현장보고서를 통해 동일한 어려움을 마주한 목회자들이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 9월호의 ‘농산어촌교회 존립’에 이어 10월호에서는 ‘도시교회 자립’에 관한 이야기를 진술하게 나눈다.

배종원 원장
다시 추수기를 맞이할 일꾼으로 준비되라
미지립교회 재정적 어려움의 근본은 돈이 교회 개혁과 개혁교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조에 사로잡히면 교회는 끝없는 혼란에 빠져 패배만을 경험할 것이다. 현재 개혁교회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짐은 높은 임대료와 낮은 사례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회 건물 공유가 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화해와 용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시편 116편 12절).
예수 생명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로다.

위대한 약속교회 가족세트 집회 중에
대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이 있는 곳에 화해의 장이 열리는 장면,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랴.

불일치가 일치가 되고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는
화해되는 실제적 장면은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기쁨의 화해에 장면이었다.

주께서 이곳에 생명의 호흡을 주셨다.
너희가 내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오늘 여기에 복음의 꽃 피웠네.

복음은 예수그리스도의 피값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대 몸이시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곳에 오는 이여 그대에게 평화 있으랴.
이곳에 머무는 이여 그대에게 평안이 있으랴.
이곳에 나서는 이들이여 그대들에게 축복이 있으랴.

교회여 생명이며, 사람이시기에
내가 이곳 갈릴리 호수삼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사라 말기했네.

교회여 생명이며, 위대한 약속교회여
가족세트 전도집회 박영수 목사의
한 영혼을 주께로 전수받은 유재민 목사,
거리 전도자로 공원 전도자로
세계선교 복음화를 외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린다.

가족세트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의 사역은
전도지를 발굴하는 사역이다.
개혁교회들 세우는 사역이다.

예수 사랑, 내가 이곳 골고다 언덕삼아
너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렸다네.
너를 위해 여기에 복음의 꽃을 피웠다네.
복음은 용서가 옴토고 화해가 이루어지네

화해의 꽃이 피는 곳, 복음은 평화! 평화일세.
놀라운 전국전지 복음의 대역사로
사랑의 꽃, 용서의 꽃, 복음의 꽃, 화해의 꽃
활할 타오르네.
활할 타오르네.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강도 담임주사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제36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프놈펜기도회

캄보디아 프놈펜서 한국교회 복음의 본질 회복 선포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세기총는 지난 10월 15일(주일) 캄보디아 프놈펜 프놈펜한인교회(서병도 목사)에서 제36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프놈펜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는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준비위원장 서병도 선교사(세기총 캄보디아 지회장)가 환영사를 전했고, 대화장 조일래 목사(세기총 제8대 대표회장)가 대화사를 통해 인사했다.

서병도 선교사는 “캄보디아에 외주신 세기총 임원들과 참석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캄보디아는 전 세계적으로 불교 신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일래 목사는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며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며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시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대화사를 전했다.

이후 김철환 목사(IP.C.K 총회파송캄보디아선교



사, 트모다길릴리국제학교장)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류기룡 교수(왕립프놈펜대학)의 특별찬양을 한 뒤 대화장 조일래 목사(세기총 제8대 대표회장)가 “참으로 강한 자”(요일 5:3-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께서서는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민족 통일을 위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한반도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평화

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다.

김관중 목사(세기총 공동회장)의 인도로 특별기도가 진행됐으며 민영기 목사(IPCK 총회파송 캄보디아선교사)가 “한반도 자유 평화통일을 위해”, 이원장로(한국목회지원센터선교사, 프놈펜기술학교 한국 어교사)가 “세계 복음화와 한인교회를 위해”, 심석진 집사(프놈펜한인교회, 왕립프놈펜대학교수)가 “북한 동포들과 전쟁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류창신 선교사(대신총회파송 선교사, David school유치원 원장)가 “3만 한인 선교사와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해”를 주제로 놓고 기도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예배가 무엇인지 정립

서울신대 설교대학원, 해외 석학 초청강연 열려

서울신대 설교대학원에서 현장목회자들이 현대 설교학의 학문적 흐름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외 석학 초청강연이 열렸다.

강사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성화의 은혜> 등의 저자로서 현대설교학의 주요한 흐름인 그리스도중심적 설교를 주창한 브

라이언 채플(Bryan Chapell) 박사이다. 채플 박사는 미국 커버넌트 신학 교(Covenan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설교학 교수 및 총장을 역임한 후에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유서깊은 장로교회 중 하나인 그레이스 장로교회(Grace Presbyterian Church)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컨퍼런스는 10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3시 30

분까지 두 번의 강의를 오전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오후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설교대학원장 소형근 교수는 본 행사를 통해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립해 나가고 새로운 시대에 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길 소망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입니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입니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50,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302-1777-9898-51 농협은행 김영국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서장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대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믿음으로 새날 같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초기 신앙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헌신자들의 노력과 고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대부흥의 역사(役事)가 한국교회 부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이들 중에 김성명 장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분은 지방의 수령으로 마을에 학교도 지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도 마시고 그저 그렇게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들어온 기독교가 싫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시켜서 기독교인들을 감시하고, 개를 풀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회가 필요한 땅을 사려고 해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가 예수님을 믿고 읍내에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김성명은 지방의 행정관으로 초대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계속 술을 마시며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웬일인지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그를 업고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술에서 깨어보니 자신이 교회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교회를 짓기까지 수고한 교인들의 열정과 성실을 보게 되었으며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함경도 도지사로서 축사를 했고, 이어서 모인 사람들을 술집으로 초청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술값은 자신이 낼 것이며, 또한 지금부터 영원히 술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함흥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데 크게 공헌한 장로가 되었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의 복음전도의 열정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농부는 일하면서 옆 친구들에게 조용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으로 전도하였으며, 여인들은 냇가 빨래터에서 이웃 여인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전도하였고,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이들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행객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2년(1885년부터 현재까지)만에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는 것은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의 결과이지만 열심 있는 성도들의 전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열심 있는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가까운 곳에는 우리들이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곳이나 외국에는 선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모토는 ‘당신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주님의 계획 속에는

따뜻한
손길로 널 빚으시며
주께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인자한 눈빛으로 너를 바라보시며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마음에 심으셨네.

하루하루
순종하며 가는 시간 속에
주님의 계획하심 이루고 계시네.
하루하루 찬양하며 가는 시간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닫게 하시네.

감추어진
비밀을 계획하시고
주께선 얼마나 가슴 벅차 하셨을까?
금홍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시며
사랑스런 주의 미소 얼굴에 그리셨네.



세상에 보내어진 생명 그분의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사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니라

북한이 지난 달 유엔총회에서 한미 공조를 겨냥해 ‘조선 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은 비논리적이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핵무기 과시는 광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뉴욕본부에서 ‘미·일·한 삼각 군사 동맹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 구도가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상진 주유엔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을 감행한 국가이고, 올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CBM) 발사실험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0월 1일로 체결 70주년을 맞이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토대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증명하는 일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이 없는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도 한미 동맹이다. 1960년대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군사원조는 매년 3억 달러에 달했다. 당시 한국이 사용하는 국방비의 87%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한국은 국방비에 쓸 돈으로 경제 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폐허가 된 최빈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미동맹을 부러워한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한미동맹에 준하는 상호방위조약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군 파견을 요구하고, 미군이 영구 주둔할 기지를 만들었다.

한때 미국과 싸운 베트남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이 커지자 최근 미국과 안보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러나 1992년 미군을 철수시킨 필리핀은 이후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 일부를 무력 점령하고 자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면서 자기들의 판단 마속으로 미군을 철수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70년간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다. 북한은 동맹을 와해시키려고 집요한 공작을 해왔다. 남한의 좌파들에게 지령을 보내 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떠들어 대게 했다. 아찔한 순간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있었다는 말이다.

그동안 주한 미군을 통한 ‘안보 우산’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낮추고, 국가 신용등급을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46.4억달러(약62조원)로 전 세계에서 아홉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7%로 1996년 이후 2%대를 꾸준히 유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3.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분단국가라면 높은 국방비 지출은 당연한데도 주한 미군의 존재가 이 비용을 낮춘 것이다. 이스라엘은 4.5% 국방비를 지출한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들의 가치는 17조~31조원에 달하며(국방대학원발표) 이를 대체하려면 23조~36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전쟁 발발시 자동 개입하는 미 증원 전력의 가치는 120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미군 철수가 국방비 증가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시 발생할 비용은 연간 90조 원가량이라고 발표했다. 떠나면 국방비 부담이 2배로 증가할 뿐 아니라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경제가 곤두박질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지난 10일에 하노이에서 미국 베트남 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 관계를 최상위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높였다. 나날이 커지는 중국의 위협을 막고자 한 베트남의 전략이다.

적과도 안보를 위해 힘을 합치고 든든한 안보가 경제적 번영의 초석이 되는 것이 국제정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안보 리스크가 커진 나라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은 없고 경제는 내리막을 탔다. 미군이 사라지자 필리핀은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었다. 알고 떠돌아야 한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2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2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후 1시(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11월 3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병 목
총 무 목사 정 진 군